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0. 24.(목) 11:00 < 10.25.(금) 조간 > 배포 2024. 10. 24.(목))

G20 국가 간 무역과 투자의 지속 가능한 발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협력 방안 논의

- 무탄소에너지(CFE) 확산 및 WTO 투자원활화(IFD) 법적 편입 필요성 강조
-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투자장관회의(10.24, 브라질리아), B20(10.25, 상파울루)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0.24.(목)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개최되는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금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 통상장관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이라는 의장국의 주제 하에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국제무역과 여성,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투자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4가지 의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 G7(美, 日, 英, 佛, 獨, 伊, 캐나다),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MIKTA(멕시코, 인니, 한국, 튀르키예, 호주), 기타(아르헨, 사우디, EU, AU)

정 본부장은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 국제무역과 여성(세션1)’에 관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한다. 또한 여성의 국제무역 참여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 등 우리의 정책 노력을 공유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여성 창업자 육성을 위한 멘토링, 사업화, 해외진출, 투자유치 등 패키지 지원책(중기부)

더하여,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 투자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세션2)’ 과 관련하여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양립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한다. 한편, WTO 투자원활화(IFD) 협정이 개도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이를 위해 조속한 WTO 법적 편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의장국인 브라질 및 미국, 영국, UAE 등 주요국 장·차관과 양자협의를 추진하여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후, 정 본부장은 10.25(금)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B20 통상장관 세션에 참석하여 ‘무역, 투자의 거버넌스, 회복력, 효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방향과 2025년 APEC 준비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우리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담당 부서	다자통상법무관 다자통상협력과	책임자	과 장	김파라 (044-203-5930)
		담당자	연구관	이홍균 (044-203-593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